



간사 역량관리프로그램 1.0

기 아 대 책

Mentoring Program\_하나님의 선교

# 하나님의 선교(The Missio Dei)와 선교적인 교회(The Missional Church)

## -빌링겐 IMC를 중심으로-

### I. 들어가는 말

1886년에 태동된 학생 자원 운동(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은 "세계 복음화를 이 세대 안에"라는 유명한 표어를 주창하였다. 서구는 이러한 낙관주의적인 분위기 안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 현장에 뛰어들어 세계 복음화에 힘을 기울였다.<sup>1)</sup> 하지만 20세기 전반부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은 그 동안 당연시되며 진행되어 왔던 선교들에 대해 재조명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선한 의도와 탁월한 선교 전략만으로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한 맥락에서 스티븐 닐(Stephen Neill)은 1964년 출간된 그의 저서 결론 부분에서 "선교들(missions)의 시대는 끝이 났다. 선교(mission)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2)</sup>

이와 같은 닐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볼 수 있다. 선교들과 선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왜 굳이 선교를 둘로 구분해야 하는가? 수많은 교회와 선교사들이 그 동안 해 왔던 것은 선교들이나 아니면 선교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하나님은 선교들과 선교 중에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이번 연구는 하나님의 선교(the missio Dei)와 그에 따른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고찰함으로 위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어느 날 불쑥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신학자와 선교학자의 논의를 통해서 발전되어 왔다. 이런 면에서 III장에서는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이 태동되었던 20세기 중반, 특별히 1952년 독일 빌링겐(Willingen)에서 있었던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IMC)와 이후에 출판된 저서를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하나님의 선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태동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본래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도록 도울 것이다. IV장에서는 하나님의 선교와 연관되어 20세기 후반부터 새롭게 규정되는 교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오늘날 21세기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복음주의 진영과 WCC가 갖고 있는 각각의 다른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아울러 현재 각 선교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역과 교회의 역할을 재점검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 II. 하나님의 선교(The Missio Dei)

하나님의 마음은 선교사의 마음이다.<sup>3)</sup>

II장에서는 본격적인 빌링겐 IMC를 고찰하기에 앞서 먼저 "the missio Dei"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the mission of God)로 불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라틴어인 the missio Dei를 영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the sending of God이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the missio Dei를 하나님의 선교로 부르는 데 별다른 거부감이 없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 A. 보내시는 하나님

서구에서는 the missio Dei라는 표현이 어거스틴 때부터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의할 때 쓰였다.<sup>5)</sup>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았다(being sent, 요

3:17, 5:30, 11:42, 17:18).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독일의 신학자인 게오르크 비케돔(Georg F. Vicedom)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보내심'(sending)에 대한 기록이 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인간과 세상에 대한 구원 활동이 성경에는 '보내심'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6)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 아울러 하나님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셨고(을 2:19),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고(시 57:4), 빛과 진리를 보내시고(시 43:3), 그의 말씀을 보내시며(시107:20), 무엇보다도 구원을 보내신다(시 111:9).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보내시고(암8:11),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 칼을 보내기도 하신다(렘 9:16).7)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보내셨고, 보내시며, 그리고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비케돔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묘사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내심 안에 존재하신다. 보내심은 심판과 은혜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현존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보내심(the missio)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증거이다."8) 만일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그분의 아들과 성령님, 말씀과 많은 선지자,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필요한 것을 보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분의 신성을 깨달을 수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며, 그 보내심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다.

## B.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내심을 받는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천사나 선지자만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도 기꺼이 보내심을 받으셨다. 비케돔은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님을 보내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단지 보내시는 분만이 아니라 동시에 보내심의 내용이다."9)라고 진술하였다.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이 땅으로 기꺼이 보내심을 받았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처럼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쉬지 않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성령님 또한 보내심을 받았다(요 14:26, 15:26, 16:7).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고, 그의 보내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총명한 은혜가 주어졌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다."10)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내시는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보내심을 받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비케돔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내심을 계속하시기 때문이며 아울러 한번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후에도 지속적인 선교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가능하다."11)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내심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계속적이고 무의미한 기증이지 아니다. 그분의 보내심은 그분이 직접 창조하셨던 피조물이 타락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선교이다. 그분의 사랑은 죄에 물든 피조물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 곳에 자신을 포함하여 필요한 것들을 보내시고 또한 직접 보내심을 받음으로 선교를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시며 종국에는 완성하신다. 이러한 맥락에서 네덜란드의

그로닝겐(Groningen) 주립대학 교수였던 로진(H. H. Rosin)은 "the missio Dei"를 영어로 표현할 때 단순히 문자적으로 "the sending of God"으로 쓰기 보다는 "God's mission" 혹은 "the mission of God"으로 쓸 것을 주장하였다.12)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땅의 죽어 가는 피조물을 선교하시기 위해 보내시고 동시에 보내심을 받는다. 그런데 I장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하나님과 선교의 이와 같은 밀접한 관계는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신학자와 선교학자에 의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제 빌링겐 IMC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선교의 관계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 III. 빌링겐 IMC: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점

선교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sup>13)</sup>

빌링겐 IMC(1952)의 방식은 각 조를 약 35명 정도의 나라와 배경이 다른 다양한 학자들로 구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5개의 주제를 각각 논하게 하였다. 각 조는 7번의 모임을 가졌고, 그 후에 중간 결과물을 제출하였다. 그 중간 결과물을 다시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토의한 뒤 최종 결과물을 만들었다.<sup>14)</sup>

빌링겐 IMC의 가장 주된 목적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은 후에 20세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다.<sup>15)</sup> 왜냐하면 더 이상 19세기의 선교 방법론은 20세기에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빌링겐 IMC를 통해 나온 결과물을 세 명의 학자들의 저서를 통해 정리한다.

#### A. 칼 하르텐스타인(Karl Hartenstein)

첫번째로 빌링겐 IMC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독일 신학자인 칼 하르텐스타인이다. 그는 빌링겐 IMC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하여 선교의 근원과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the missio Dei"라는 표현을 썼다.

선교는 인간의 활동이나 조직이 아니고, "그것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만류를 화해(reconciliation)시키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선교의 근본이자 목적이다. 오직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the 'Missio Dei')만이 '교회의 선교'(the 'Missio ecclesiae')가 된다.<sup>16)</sup>

하르텐스타인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선교의 근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었다. 그는 선교의 주체는 교회나 선교 단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였다. 그분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선교는 이와 같이 보내시고 보내심을 받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기인하며, 오직 이러한 선교만이 교회의 선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하르텐스타인의 주장은 교회와 선교 단체로 하여금 그 동안 그들이 진행해 왔던 다양한 선교들(missions)에 대해서 재고해 보게 한다. 왜냐하면 선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은 각 교회나 선교 단체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선교들이 하나님의 선교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르텐스타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선교는 단지 개인의 회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선교는 단순히 회종을 모으는 일에 헌신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선교는 모든 속죄받은 피조물 위에 세워지는 그리스도 주권의 포괄적인 목적을 동반하며,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participation)하는 것이다.<sup>17)</sup>

하르텐스타인은 선교가 단지 회심자를 많이 만드는 것만도, 교회를 많이 개척하는 것만도, 그리고 낙후된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만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다양한 선교들(missions)이 선교 현장에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 피조물을 향하여 그분의 선교를 시작하셨고 진행하시며 종국에는 완성하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포괄적인 선교에 교회와 선교 단체는 계속해서 그들만의 작은 선교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기보다는 먼저 그분의 크고 거룩한 하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하르텐스타인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고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그분의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홀로 구원을 창조하셨다. 아들의 죽음, 부활, 승천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버렸고, 완전한 화해를 이루었다. 새로운 인류가 승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창조된다."<sup>18)</sup>

하나님은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분이 선교를 시작하신 분(Initiator)이다. 교

회와 선교 단체는 절대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수 없다. 그들은 작은 선교는 계획하고 실행할 수는 있을지라도 절대로 구원의 선교를 시작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고 시작하신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와 선교 단체는 그분의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

#### B. 노만 구달(Norman Goodall)

빌링겐 IMC와 연관된 두 번째 중요한 신학자는 노만 구달이다. 그는 1953년에 빌링겐 IMC의 결과를 정리하여 『십자가 아래에서의 선교들』이라는 책을 편집하여 출간하였다. 그도 이 책에서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선교적인 행동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근원을 두고 있다."<sup>19</sup>)고 하며 하르텐스타인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구달의 주장은 빌링겐 IMC에 참석했던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의 의견이 아니다. 위의 책의 2부에는 회의 기간 중에 토론했던 주제에 관한 최종 성명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하나님은 한 명의 구원자, 한 명의 목자를 모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다. 구세주의 죽음과 부활, 승천은 하나님과 인간의 벽을 허물어 버렸다...이 구원의 업적 위에서...우리들이 그분의 증인과 대사로서 그분의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하나님은 예수의 영인 그분의 영을 보내셨다.<sup>20</sup>)

로진이 지적했듯이 빌링겐 IMC의 최대 수확은 이와 같이 선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다.<sup>21</sup>) 하나님의 선교(the missio Dei)는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을 위해 시작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그분의 선교(mission)는 이 땅의 모든 선교들(missions)보다 크다. 따라서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 교단이나 선교 단체의 목표, 선교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 그리고 선교 방식은 그분의 선교 안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선교에 동참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 C. 빌헬름 앤더슨(Wilhelm Andersen)

독일 신학자인 앤더슨도 1955년 그의 저서<sup>22</sup>)에서 빌링겐 IMC의 결과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선교의 깊은 연관성에 대한 발견으로 보았다.

빌링겐 문서에 의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선교 활동의 유일한 근원임을 선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의 핵심은 아들을 보내고 또한 성령을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는 선교적인 행동을 주저하지 않으셨다...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성령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선교 활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어떠한 인간의 권력에도 선교를 넘겨 주지 않으심을 증명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남아 계시는 분이며, 모든 선교 활동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이러한 표현이 유일하게 적합한 분이다.<sup>23</sup>)

특별히 앤더슨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선교의 유일한 근원임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은 선교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활발히 선교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한 번 아들을 보내심과 그 후에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선교를 종료하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인류를 향해 선교하고 계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the missionary God).

이러한 사실은 선교의 의미가 교회나 선교 단체가 어떤 지역이나 민족을 향해 자신의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선교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향해 선교를 시작하셨고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어떤 곳도 하나님의 선교가 미치지 않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다. 교회나 선교 단체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할 때 마치 어떤 지역이나 민족은 아직 한 번도 선교하지 않은 지역이나 민족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향한

선교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은 이미 선교를 시작하셨고 선교를 하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그분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맥락에서 앤더슨은 빌링겐 IMC에서 선교 활동이 교회 중심적인 방향인 것에 대해서 강한 비판이 있었음을 지적하며<sup>24)</sup> 아울러 그 또한 다음과 같이 교회는 절대로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역설하였다.

교회는 선교적인 사고를 결정해야 하는 곳에서 진정한 중심이 아니다. 선교 사업의 신학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찾는 참되고 진정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sup>25)</sup>

빌링겐 IMC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선교의 관계를 명확히 한 것이었다. 하나님과 선교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선교를 제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으며 교회가 주체가 되는 선교는 있을 수 없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이 주관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선교를 시작하셨고 진행하시며 완성하신다. 그분은 바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빌링겐 IMC 결과는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하여 교회의 위치와 목적을 재정립하게 하였다.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 IV.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

##### A. 교회 존재의 목적

마치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에 의해서 존재한다.<sup>26)</sup>

1957년에 독일어로 출간된 『하나님의 선교』<sup>27)</sup>에서 비케돔은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관계를 빌링겐 IMC와의 연관성 안에서 잘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비케돔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하나님 그분께서 선교를 실행하신 이래로 하나님께서 선교를 의도하고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오직 교회는 그분의 목적에 자신을 복종할 때에만 그분의 그릇과 도구가 될 수 있다. 만일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자신을 분리한다면, 교회는 불복종하는 것이며 더 이상 거룩한 의미에서 교회가 될 수 없다.<sup>28)</sup> 앞에서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그분이 인도하심을 명확히 하였다. 그렇다면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 만일 하나님께서는 선교하고 계시고 그분의 자녀들이 선교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는 막상 선교보다 다른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스스로의 존립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교회의 존재 목적에 관해 하르텐스타인도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선교는 교회의 유일하게 적법한 처음이자 가장 근본적인 임무이다...선교는 교회의 핵심, 존재(the being), 그리고 존립이다...교회는 선교적인 활동 안에서 존재한다."<sup>29)</sup>

선교를 떠난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다. 교회가 선교의 주체인 경우에 선교는 교회의 여러 가지 목표 중에서 하나의 선택 사항이 될 수 있다. 즉, 선교는 관심이 있거나 혹은 여건이 허락되는 교회만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선교에 대한 생각은 교회로 하여금 두 극단으로 나누어지게 한다. 그 한편으로는 선교에 열의가 있는 교회가 자신의 계획과 목표에 맞는 선교들(missions)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경우이다. 다른 한편은 선교의 열정이 없는 교회로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는 상관없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므로 그분의 부르심에 당연히 해야 할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교회 대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일 때는 더 이상 선교는 교회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다. 만일 선교가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구달 또한 "언제나 지역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반드시

선교적인 활동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30)고 주장하였다. 특별히 그는 빌링겐 IMC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 하며 선교는 교회를 통해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교회를 부르신 것을 믿는다. 그러한 선교는 단체에서 파송받은 해외 선교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삶 안에서 그분을 증거하라는 것을 확신하는 남녀 평신도가 전세계에 있는 사업체, 기업, 정부에서 일할 때도 나타난다.31)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목적이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이와 같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빌링겐 IMC 이후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교학자와 신학자가 계속적으로 강조하였다. 먼저 1960년대에 요하네스 블라우(Johannes Blauw)는 선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세상으로 보내진 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는 없고,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 이외에 다른 선교는 없다."32)고 진술하면서 교회가 세상에서 할 일은 오직 선교임을 역설하였다.

플러신학교의 선교신학 교수인 찰스 밴 엔겐(Charles E. Van Engen)도 교회와 선교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하였다. 밴 엔겐은 "선교적인 활동은 교회의 가장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온다."33)고 말하였다. 빌링겐에서 선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원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음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선교가 흘러나온다는 그의 주장은 매우 타당하다. 또한 밴 엔겐은 "교회는 반드시 그 선교적인 본성을 지금 여기서 실현해야 한다."34)고 주장하였다. 많은 재정이 모인 뒤에 혹은 헌신하는 선교사가 있을 때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 교회는 바로 지금 각 교회가 위치한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

영국의 저명한 신약학자인 라이트(N. T. Wright)도 "다시 말해 교회는 예수를 주님으로 세상에 전하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선교는 교회의 중심에서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다."35)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빌링겐에서의 선교학적인 발견은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관계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교회는 선교를 이차적인 것으로 다룰 수 없으며 오히려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 B. 하나님 선교의 도구

두 번째로 비케돔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교회의 위치를 정확히 하였다. 교회는 절대로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선교의 최종 목표도 아니다. 대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도구(instrument)이다. 비케돔은 "교회는 반드시 먼저 그분의 선교적인 의도를 이루는 것에 복종해야 한다."36)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비케돔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지속적인 지지를 하였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이었다. 그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우리는 선교들의 '교회 중심적'인 이해가 주류를 이루던 선교의 시대에도 열매가 있었음을 필히 주지해야 한다...그러나 '교회 중심적'인 선교의 교리와 사역은 또한 오해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진실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대리인(agent)이며 그분께서 인류와 관계하시는 열쇠(clue)이다.37)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교와 연관하여 교회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빌링겐 이후에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위치와 관련하여 두 부류의 극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은 빌링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호켄다이크(J. C. Hoekendijk)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호켄다이크는 하나님의 선교는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하기 힘들기에 교회는 절대로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분명 여기까지는 옳은 말이나 그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교회는 불필요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하였다.38) 다른 한편의 극단은 빌링겐 IMC 이후에도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들의 목적에 맞추어서 선교들(missions)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극단의 상황에서 뉴비긴은 하나님의 선교와 연관하여 교회의 역할을 정확히 제시하였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다만 선교의 신실한 도구로서 그분의 선교에 참여한다.

이러한 뉴비긴의 명확한 전제를 바탕으로 보쉬는 좀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의 선교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반영할 때에만 참된 것이다...그러므로 교회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지 교회를 개척하거나 영혼을 구하는 것에만 국한될 수 없다. 대신 그것은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강조하며, 세상의 견해 앞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주현절(Epiphany)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에 봉사하는 것이다.39)

프린스턴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이자 장로교 전통 가운데 있는 데럴 구더(Darrell L. Guder) 또한 보쉬의 주장에 동의하며, 교회는 복음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임을 명확히 한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의 목적도 목표도 아님을 보아 왔다. 오히려 교회는 복음의 도구이며 증거이다."40)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주님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 시대에도 교회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위의 학자들이 지적하듯 교회는 그 자체로서는 존재 의미가 없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신실한 도구가 될 때에만 참된 의미를 갖는다.

### C. 선교로부터의 교회

선교는 반드시 교회보다 앞서야 한다.41)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와 연관된 교회의 이슈는 교회 생성의 문제이다. 비케돔은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돌봄 안에 있는 도구이다. 교회 자신은 오직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이다."42)라고 주장하였다. 즉 교회는 스스로 먼저 존재하여 선교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다시 말해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이고, 교회는 그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다.

비케돔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 모든 열방 가운데서 일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없을 것이고,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의 회중도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선교도 없을 것이다."43) 비케돔의 이러한 주장은 교파와 상황이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일치되고 있다.

먼저 위르겐 몰트만(Jurgen Moltmann)은 선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다.

오늘날 교회의 신학적 이해는 기독교 공동체의 몰락 속에서 선교하는 교회의 이 경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교회는 선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의 선교가 그 자체의 교회를 창조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로부터 선교가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로부터 교회가 이해되어야 한다.44)

이러한 몰트만의 주장은 오랜 기간 발전되어 왔던 기독교의 일반적인 교회론에 비추어 볼 때 획기적인 것이다. 그 동안 기독교 교리에서 선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론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빌링겐 IMC 이후 많은 학자들이 교회를 정의할 때 선교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루는 것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서 선교가 교회보다 선행되며 교회는 선교의 결과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풀러 신학교 교회 성장학 교수인 에디 깁스(Eddie Gibbs)와 라이언 볼저(Ryan K. Bolger)는 주로 서구 유럽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포스트모던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관해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였다. 두 교수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독교가 지속적으로 감퇴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의 리더와 인터뷰를 한 뒤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교회는 선교의 대리인(agent)이기 이전에 먼저 선교의 결과물(product)이다."45)

또한 미국 인디애나 주에 있는 연합 메노나이트 성경신학교(Associated Mennonite Biblical Seminary)의 교수인 로이스 배럿(Lois Y. Barrett)도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를 만들었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주었다."46)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상황과 배경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를 창조하고 동시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제공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정리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대신하여 계속해서 작은 선교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러한 방법의 선교는 자칫 하나님의 선교와는 상관없는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가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할 필요

도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의해 성립되었고 그것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설립된 교회는 시대와 장소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신실한 도구여야만 한다.

#### D. 선교적인 교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47)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관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님도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시고 보내심을 받으며 선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향해 교회를 보내신다. 이에 관해 비케돔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교회와 교회의 선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와 선교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교적인 관점에서만 오로지 이해될 수 있다. ...교회와 선교들의 초점은 언제나 그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원하시는 보내시는 분에 맞추어야 한다.48)

비케돔의 위의 주장은 교회에 몇몇 선택된 선교사나 혹은 여건이 되는 특별한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었을 때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었을 때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것이다. 교회가 주체가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다. 교회는 선교사로 '소명'받은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여 훈련시키고 파송하였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혹은 선교 단체가 원하는 선교들을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선교는 다르다. 그분 자신이 먼저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분은 선교하시는 하나님(the missionary God)이다. 그분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선교로부터 교회가 탄생하였다. 그러기에 교회는 마땅히 선교적이어야 한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분의 자녀들은 선교적이어야 한다. 그들 모두는 보내심을 받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윌버트 쉥크(Wilbert R. Shenk)는 "모든 문화와 교회의 일반적인 관계는 선교적인 대면이다."49)라고 주장한다. 만일 어떤 교회가 선교적이지 않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교회는 반드시 그들의 위치와 상황 가운데서 선교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피해 갈 수 없는 것이며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인 교회(the missional church)이어야 한다.

그러면 각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깁스와 볼저는 다음과 같이 명확한 대답을 준다. "예수님의 길보다 선교 활동을 위한 더 좋은 모델은 없다."50)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예수님은 선교의 최고 모델이다.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선교사의 삶 그 자체였다. 그분은 철저히 보내심에 충실하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며 그분의 선교에 목숨을 바쳤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서 글라스(Arther Glasser)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선교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선교를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즉 우리의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선교가 아니라면, 선교는 식민지 확장, 교세 확장, 종교적 개종, 사회 봉사로 전락해 버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의미의 선교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만 성경적인 선교라 할 수 있다.51)

이제 IV장을 정리하면, 빌링겐 IMC 성과는 교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었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탄생한다. 그러기에 모든 지역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이어야 하며 그분의 선교에 주체가 아닌 도구로서 동참한다.

교회가 선교적이라는 의미는 각 지역 교회에서 소수의 훌륭한 선교사를 배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재정의 일정 분량을 선교에 쓰는 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임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들 모두는 선교사이자 그들은 매일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초대한다. 선교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에 최우선이자 최고의 목표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시대와 장소가 변하여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실천한다.

## V. 맺는 말

21세기 전세계에는 수많은 종류의 교회가 있다. 이 교회가 모두 역사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전통과 교리를 계승하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오직 한 가지만의 의제를 가지고 있었다. 조나단 캠벨(Jonathan Campbell)은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지적한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분의 사역을 계승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52) 1세기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선교를 지속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는 그것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다. 이러한 1세기의 상황에 대해서 구더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확신을 공유하고 있었다...그들은 서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함을 알고 있었다...그들의 부르심은 "나의 증인 되는" 것이었다...현대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그들 자신이 "천성적으로 선교사"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53)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와 관련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선교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추종자였다. 그들의 그러한 삶은 선교적이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신실한 선교적 도구였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아낌없이 바쳤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McGill) 대학의 은퇴 교수인 더글러스 존 홀(Douglas John Hall)은 "그리스도인의 선교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the missio Dei)를 인지하며 그것에 참여하기 위한 신실하면서도 지속적인 노력이다."54)라고 진술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도 쉬지 않고 온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시며 종국에는 그분의 선교를 완성하신다.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끊임없이 선교적이어야 한다. 거기에는 어떠한 타협이나 포기가 있을 수 없다. 부르심을 받은 그분의 모든 자녀는 이 땅에서 그들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분의 하나의 큰 선교에 기쁨과 감사로 동참해야 한다.